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 개도국의 가난에 관한 담론을 중심으로*

박지훈**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조교수

류경화***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석사과정

이 연구는 케이블 채널 tvN의 리얼 스타다큐 <월드스페셜 LOVE> 시리즈를 분석함으로써 스타들이 참여하는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가난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고 그 사회적 함의를 논의한다. 기업의 자선이나 개인의 봉사를 통해 가난, 재난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문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스타들이 참여하는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첫째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인 병폐를 은폐하는 텍스트로서의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둘째로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의 현실을 보여주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텍스트로서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이 논문은 한 텍스트 내에 공존하는 상반된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진 장르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리얼리티 장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인물의 정형화와 내러티브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한 현실의 재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는 점에

* 본 논문을 읽고 건설적 제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winterof93@korea.ac.kr, 교신저자

*** tj9829@hanmail.net

서 한계를 가지나, 리얼리티 장르가 가진 독특한 특성들, 예컨대 불예측성, 극본 없이 보여주는 행동과 대사, 프로듀서의 불완전한 통제 등으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관한 적나라한 현실이 보여지고 진보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장 또한 마련될 수 있다.

키워드: 가난, 리얼리티 프로그램, 해외봉사, 신자유주의, 인종주의

1. 들어가며

“빈곤에 허덕이는 개도국 마을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불행하고 우울한 아이들이 사는 황량한 마을에 어느 날 한국의 스타가 찾아가고 그(녀)의 따뜻한 정성과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은 희망과 웃음을 되찾는다.”

언뜻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비추어지는 한국 스타들의 해외봉사 이야기다. 우리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가난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스타들의 모습을 각종 매체를 통해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고소영, 김혜자, 조민기, 박용하, 박해진, 변정수, 이효리, 정태우, 최수종 등의 해외봉사에 관한 이야기도 신문과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소개되었다. 2008년 5월에는 <MBC스페셜>이 차인표의 에티오피아 자선활동을 보여주면서 캠페인을 통해 후원을 받는 어린이들의 생활을 소개했고, 2009년에는 해외 시사 프로그램인 MBC의 <W>도 원빈, 박진희, 권오중, 김혜수 등의 스타들이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봉사를 다녀오는 특집을 제작할 정도로 스타들의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인기 있는 방송 포맷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수년째 이어지는 지속적인 국제구호활동보다 단기봉사 일정으로 한 번

참여하는 스타들이 대부분이지만, 스타들의 해외봉사 이야기는 각박한 현실에서 보기 드문 따뜻한 이야기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는 숭고한 행동 뒤에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이미지 관리에 급급한 스타들의 생색내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봉사의 담론에 관한 것이다. 스타들이 방문한 개도국의 아이들은 방송에 비추어지는 모습만큼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 스타들의 선행을 통해서 아이들은 행복해졌을까? 스타들의 선행으로 진정한 변화가 생겨났을까? 이러한 다소 불량스런 물음들에서 이 논문은 출발한다.

이 연구는 스타들의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개도국 빈곤이 재현되는 방식과 그 함의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자선이나 개인의 봉사를 통해 가난, 재난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문화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스타들이 참여하는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첫째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구조적인 병폐를 은폐하는 텍스트로서의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계를 논하고, 둘째로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의 현실을 보여주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텍스트로서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논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담론이 공존하는 텍스트로서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것이다.

스타들의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함의를 연구하기 위해 케이블 채널 tvN의 리얼 스타다큐 〈월드스페셜 LOVE〉 시리즈를 분석한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개도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2008년 5월 31일에 첫 방송을 하여 2009년 8월 현재 총 10명의 스타가 사진작가와 짝을 지어 참여한 일명 자선 로드 프로그램이자 리얼다큐 시리즈¹⁾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익성을 인정받아

제3회 케이블TV 방송대상 교양부분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월드스페셜 LOVE> 사진전과 자선행사가 개최되기도 했고 2009년 말에는 사진집이 발간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한국의 톱스타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를 통해서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 가난과 경제 성장의 신화

한국의 시청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오늘날 인류가 처한 기아와 같은 참담한 빈곤의 현실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하루에 2달러로 생활한다는 이야기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0명의 총 자산이 전 세계 41% 사람들의 일 년 총수입보다 더 많다는 등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의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현 시대의 빈곤은 자원과 재화의 결핍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부의 분배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강국, 2007; Berger, 1991; Seabrook, 2003; Ziegler, 1999, 2005). 경제학자들은 빈곤의 원인과 해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소득격차가 증가하고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고 있다. 빈곤과 양극화의 현실은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비서구,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주목 받고 있는 이

1) 리얼다큐 시리즈, 자선 로드 프로그램 등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지칭된 명칭이다.

유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빈곤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이면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 나라 고유의 역사적 조건, 사회적 갈등과 권력관계, 내전, 부정부패, 지리적 요인, 자연재해, 질병, 제도적 문제점 등이 양극화와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 빈곤의 외부적 원인으로는 서구 식민화에 의한 자원착취, 냉전과 탈냉전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와 정치 불안, 개도국 평가절하, 서구 자본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불평등한 경제구조, 구조적인 저성장의 모순을 지닌 시장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한계 등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중에서도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지지자들은 자유화와 시장 개방을 통한 국경을 초월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개도국의 빈곤과 소득 분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화 지지자들의 논리와 달리, 198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을 모두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이강국, 2007; Chossudovsky, 1997).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양극화가 악화된 여러 국가들의 사례들이 뚜렷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성장을 통한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가 개도국 가난의 해결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신화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빈곤의 원인은 저개발이고 부의 창출과 경제성장이 빈곤 해결의 답이라는 논리는 위에 언급한 빈곤의 내외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은폐함으로써 자본주의와 세계화가 수반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주변화시키거나 배제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구의 핵심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담론이 자본주의의 이행과 동시에 깊어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과 빈곤문

제를 매개하는 방식이다. 즉 시청자들로 하여금 개도국 빈곤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외적, 내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가난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재현되는 개도국의 빈곤은 오로지 그 나라의 내부적 문제로만 축소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스타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나타난 개도국의 절대적 빈곤은 대부분의 한국 시청자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이유로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인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보다 피부색이 검은 개도국 국민들은 가난하고 우리보다 후진적이고 원시적이라는 고정관념과 맞물려 타자인 그들은 우리보다 무능하기 때문에 빈곤하다는 인종주의와 편견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²⁾ 즉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우리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은 인종주의와 성장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한국인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시혜적 우월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한계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1990년대 이후 세계 방송계를 장악한 인기 장르로 자리 잡았다. 리얼리티 장르는 리얼리티 메이크오버쇼(Reality makeover show)나 리얼리티 게임 쇼(Reality game show), 다큐소프(Docusoap)와 같은 다양한 하위 장르를 아우르

2)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연구한 노경관과 방희정(2008)에 따르면 국내 대학생의 백인 선호도는 흑인, 동남아인 선호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에 나타나는 내재적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우실하(1997)의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논의와 유선영(1997)의 황색식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유용하다.

는 폭넓은 개념이지만, 다양한 리얼리티 포맷들을 아우르는 공통 요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리얼함에 대한 담론적이고 영상적이고 기술적인 주장들이다”(Holmes & Jermyn, 2004, p. 5). 2000년대 이후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이전 세대의 프로그램들과 구분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의 “리얼함”이나 “진실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리얼리티”라는 말 자체가 프로그램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리얼버라이어티 무한도전”이나 “리얼실험 프로젝트 X”, “리얼다큐 천일야화”, “메디컬 리얼다큐 닥터스”와 같이 “리얼” 또는 “리얼리티”라는 단어가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안정한 프레이밍이나 포커스가 맞지 않는 카메라 샷, 오디오 수음의 문제 등 기존에 방송에 적합하지 못한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도 오히려 리얼리티 장르에서는 현장감을 살리는 요소들로 적극 활용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오락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장르로 자리 잡았지만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 유용한 인포테인먼트의 포맷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Hill, 2000; Kilborn, 1994, 2000; McCarthy, 2004). 미국의 〈Rescue 911〉, 〈America’s Most Wanted〉, 영국의 〈Children’s Hospital〉, 〈999〉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공익성과 오락성을 결합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로 한국에서도 MBC 〈경찰청 사람들〉, 〈닥터스〉, KBS 〈병원 24〉, 〈체험 삶의 현장〉 등과 같이 공익성을 내세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공익성, 자선과 봉사에 중점을 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체험이나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변화를 강조하는 메이크오버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외 계층 가정의 집을 무료로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주는 ABC의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자 자선 프로그램이고, 두 가정에게 완전히 상반된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각 가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ABC의 〈Wife Swap〉, 백인과 흑인 가족이 특수 분장을 통해 서로 다른 인종의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게 된다는 FX Networks의 〈Black, White.〉도 리얼리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가난한 가족의 집을 수리해 주거나 새로 지어주는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리브하우스〉나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MBC의 〈눈을 떠요〉가 대표적인 예이고, 집단 실험을 바탕으로 한 (예를 들어 외국인들에게 직접 캡코더를 주고 그들이 보는 한국을 담아 보게 하는 실험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EBS의 〈리얼 실험 프로젝트 X〉도 대표적인 리얼리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다.

학자와 비평가들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진 사회적 함의나 이데올로기적 가능성, 즉 기존의 권력구조나 불합리한 현실에도 도전하는 담론의 형성 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데 그 이유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진 장르적 한계와 관련되며 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캐릭터로 이는 프로그램의 제작 관행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각본 없이 이루어지는 행동과 대사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스토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적절한 캐스팅 관행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필수적이다. 리얼리티 장르가 가진, 대본 없는 행위에 대한 불예측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시청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캐릭터가 선호된다(Alexander, 2004; Roscoe, 2001; Miller, 2000). MBC의 〈무한도전〉이나 SBS의 〈패밀리가 떴다〉, KBS의 〈1박 2일〉과 같은 대표적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캐릭터의 중요성은 등장인물 본인들에 의해서도 강조되곤 하는데, 등장인물들의 캐릭터 구축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성공 요건이라는 점은 시청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종, 젠더, 민족, 계급, 성적 성향 등 중요한 사회

적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경우 정형화된 캐릭터가 문제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정형화된 이미지 속에 가두게 됨으로써 사회적 차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경우 캐릭터 간의 다툼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소로서 인종, 젠더, 성적 소수자들과 관련된 정형화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인종주의자 백인과 흑인, 동성애자와 동성애 혐오자 등을 함께 출연시키는 관행은 극적 재미를 주는 캐릭터 간의 갈등을 만들어냄으로써 드라마를 창출해 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Kraszewski, 2004).

둘째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학자와 비평가들의 비판은 리얼리티 장르의 관행인 현실의 극적인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리얼리티의 일상성과 평이함이 주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극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 위해 실험, 메이크오버와 같은 인공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며, 시청률을 의식한 제작진들은 편집 과정에서 현실을 흥미 위주로 재구성하기 때문에 오락성을 위해 현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경숙, 2006; 홍석경, 2004; Andrejevic, 2004; Kilborn, 1994, 2000; Miller, 2000; Syvertsen, 2001). 홍석경(2004)은 스펙터클을 위해 현실과 허구를 혼합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현실인식을 제공하고 인식론적 혼돈 상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김미라(2008)는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는 젊은이들일수록 이성 관계에 대한 가볍고 왜곡된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니콜스(Nichols, 1994)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내러티브의 한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내러티브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둘째, 논리적인 주장과 하나의 주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보다는 영상의 화려함(visual spectacles)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 된다. 셋

재,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주제와 캐릭터를 다루는 데 있어 윤리적이기 못하기 때문에 재미를 위해 의도적으로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하는 데 실패한다.

미디어 학자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아무리 공익적인 성격을 취하더라도 결국 기존 질서에 도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비판적이고 심각한 관심이 필요한 사건이나 주제들을 다루는 경우라도 시청자가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공론화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사안과 의제들을 지나치게 사사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영찬(2006)은 모든 것을 사사화하는 성향은 상업 미디어의 근본적인 속성이므로 리얼리티 프로그램 외에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특별히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이 장르가 평범한 개인의 사생활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경숙(2006)은 KBS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러브 人 아시아〉는 공익성과 오락성을 추구하며 이산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멜로 드라마적 관습에 의존함으로써 이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감동적 휴머니즘으로 사사화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본덴저그(Bondebjerg, 1996) 또한 영국의 범죄 리얼리티 프로그램 〈Crimewatch UK〉가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관해서 다루고 있지만 범죄의 사회적 맥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킬본(Kilborn, 1994)은 영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999〉의 경우 응급서비스가 어떻게 운용되

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료비 지원 삭감으로 인한 의료계의 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이슈는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장르적 특성상 사회 구조적인 맥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며, 시청자들이 가진 세계관에 도전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특정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설명(highly personalized accounts)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비판적 연구의 초점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이 재생산되는 현상이다. 오울렛(Ouellette, 2004)은 신자유주의적 담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며 〈Judge Judy〉와 같은 리얼리티 법정 프로그램은 개인규율과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통치(neoliberal forms of governance)의 기구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오울렛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을 조직하는 최고의 방식으로서 자유 시장을 촉진하는 세계관”(p. 225)이라고 정의하며 시장의 법칙, 공공 서비스의 축소, 탈규제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유산업의 사유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책임으로 대체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본다. 신자유주의는 복잡한 사회적 원인이나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파생된 문제점을 개인의 책임 문제로 환원시킴으로서 사회구조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자를 비난하는 담론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Judge Judy〉는 저소득층의 문제가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나 정부지원의 축소로 인해 발생하고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저소득자들이 게으름이나 비윤리적 행동, 무지, 잘못된 선택 등으로 인해 자초한 결과이므로 그들이 스스로 본인의 불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담론을 생산하고, 정부 개입과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정당화함과 동시에 구조적인 불평등을 은폐한다. 법정 리얼리티 프

로그랩은 신자유주의를 대변하고 시청자를 “스스로 규율 하는 주체(self-disciplining subjects)”로 호명한다.

맥머리아(McMurria, 2008)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ABC의 <Extreme Makeover: Home Edition>의 분석에서 스타나 기업의 후원을 통한 방송사의 자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가난한 자를 위해 선행을 베푸는 공익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고용, 보험, 주거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체계적인 해결책에 관한 관심을 흐리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심각한 사회 이슈들을 해결하는 주된 수단으로써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선활동, 개인의 봉사활동, 그리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라는 문화, 정치, 경제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크레이즈스키(Kraszewski, 2004)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미국 MTV의 장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The Real World>에서 인종주의는 잘못되거나 틀린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의 문제로 좁게 정의됨으로써 제도적, 문화적, 시스템적인 성격의 인종주의를 간과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형성해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학자들의 비판을 요약하자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전달할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 관행이 현재의 사회질서를 선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회의 다양한 불합리한 권력관계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재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복잡한 사고와 감정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4.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반헤게모니적 가능성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한계에 관한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리얼리티 장르가 가진 반헤게모니적 가능성에도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리얼리티 장르는 경쟁적인 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창의적이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와 포맷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나 개도국의 오지에 살게 함으로써 부자 아이들의 낭비벽을 고치게 하고 절약을 배우게 하는 MTV의 〈Exiled〉, 패션 감각이 없는 이성애 남성을 다섯 명의 센스 있는 동성애자들이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Bravo의 〈Queer Eye for the Straight Guy〉, 서로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 흑인 래퍼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VH1의 〈Flavor of Love〉, 백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그룹들이 서로 경쟁하는 CBC의 〈Survivor: Cook Island〉 등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몇 개의 예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종과 성적성향 등의 재현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코너(Corner, 2000)는 좀 더 새롭고, 신기하고, 때로는 논란이 될 만한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관행의 특성은 기존 질서에 대한 전복적이고 반헤게모니적인 재현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른 장르에 비해 리얼리티 장르는 기존에 배제되어 왔던 다양한 범위의 소재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확장과 더불어 소수자들의 재현이 증가해 왔는데 성적 소수자가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솔직한 성적 소수자들의 가시성(visibility)이 높아졌다는 점에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Gross, 2001; Miller, 2000). 뮤노즈(Munüz, 1998)에 의하면

MTV의 〈The Real World〉와 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인종, 성적 소수자들을 꾸준히 캐스팅해 왔고, 정형화된 캐릭터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는 소수자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공적 영역에 만연하는 인종주의와 동성애 혐오증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정치적 개입으로서 작용한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지는 반해게모니적 가능성은 장르의 기본 특징인 각본 없는 행동과 대사가 가지는 불예측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들은 대본 없이 일어나는 행동들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캐릭터를 캐스팅하고 패턴화된 내러티브를 적극 활용하지만, 다른 장르와 달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언제나 예측하기 힘든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Roscoe, 2001). 김예란과 박주연(2006)은 리얼리티 제작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얼리티 장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진솔한 실제 상황이 주는 흥미와 재미임을 발견한다. 풀렌(Pullen, 2004)은 아무리 프로듀서가 캐스팅과 편집을 통해 동성애자 캐릭터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강조하더라도 이 캐릭터의 돌발적인 행동이나 예측 못했던 행동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편집을 통해 모두 걸러지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프로듀서가 정형화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스테레오 타입에 근거한 캐스팅을 하더라도 각본이 부재한 상황에서 프로듀서가 배우의 모든 대사와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 내내 또는 한 시즌 내내 동성애자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되는 이미지만을 보여줄 수는 없다. 또한 리얼리티 장르의 불예측성으로 인해 기존 이데올로기를 전복하는 성적 소수자를 향한 편견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등장할 가능성도 많아질 수 있다. 인종간의 갈등을 내러티브의 주요소로 사용하는 MTV의 〈The Real World〉의 경우 인종 간 갈등을 다루는 내러티브는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해서 솔직한 대

회를 종종 유도하고 목소리를 부여받지 못했던 인종 소수자가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담론은 기존 이데올로기에 대해 전복적이고 때로는 진보적이다. 즉 인종갈등의 묘사가 비록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문맥과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지나 시청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인종의 경험과 관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Park, 2009). 시청자들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간접 체험하고 그 해결점을 공동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이종수, 2004).

요약하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극적으로 재구성된 단순화된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정형화된 캐릭터를 보여준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리얼리티 장르가 가진 독특한 특성들, 즉, 다양한 소재의 선택, 불예측성, 극본 없이 보여주는 행동과 대사, 프로듀서가 가진 불완전한 통제 등으로 인해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관한 비교적 “덜 매개된” 현실이 보여지고 진보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는 장 또한 제공할 수 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기존 권력구조를 재생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상반되고 진보적이며 반헤게모니적인 비판 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텔레비전은 명확하고 합의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상반된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문화적 포럼이라고 주장하는 뉴콤과 허쉬(Newcomb & Hirsch, 1983)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5. 연구 대상의 선정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스타들이 등장하는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주 연구방법으로 택하

여 tvN의 리얼 스타다큐 <월드스페셜 LOVE>시리즈를 분석한다. 이 시리즈는 채널의 선정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사회공헌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굿네이버스와 같은 국제구호기관들이 협찬하였다. 홈페이지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는 거의 대부분 스타와 제작진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글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가득 차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2008년 5월 첫 방송된 류승범 편부터 2009년 8월까지 방영된 한지민 편까지 총 10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각 에피소드의 방영시간은 광고를 제외하고 44~49분 정도이고 이보영 편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의 빈민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하늘과 이준기가 함께 출연한 인도네시아 편을 제외하고는 각 에피소드당 한 명의 스타가 사진작가와 짝을 이루어 참여하였고 에피소드당 2부로 구성되었는데, 김하늘/이준기 편은 예외로 총 4부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사회적 함의인 만큼, 텍스트 분석의 초점은 <월드스페셜 LOVE>가 자본주의가 초래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재현하는 방식이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에피소드의 기본 정보

편	제목	등장 스타	배경 국가	편수, 방영 시간
1	즐거운 나의 집	류승범	태국	2부(총 49분)
2	인생은 아름다워	신현준	말레이시아	2부(총 48분)
3	안녕 소마야	배두나	네팔	2부(총 47분)
4	땀뭉, 그 여름의 끝	김지수	캄보디아	2부(총 44분)
5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	이보영	몽골	2부(총 44분)
6	소년은 울지 않는다	이요원	베트남	2부(총 48분)
7	쓰레기 마을의 천사들	이지아	필리핀	2부(총 44분)
8	레드랜드의 하늘은 푸르다(1, 2부) 뒤돌아보면 사랑이 있다(3, 4부)	김하늘 · 이준기	인도네시아	4부(총 86분)
9	바세코로 가는 길	송지호	필리핀	2부(총 45분)
10	행복한 학교 알라윈	한지민	필리핀	2부(총 45분)

가난은 어떻게 정의되고 해결되는가? 개도국의 양극화에 관한 사회적, 구조적인 문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가?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리얼리티 장르가 가진 이데올로기적 한계와 반해계모니적 가능성에 주목한다.³⁾ 한계로서는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문화적 맥락과 상업 미디어의 관행과 실천의 산물로서, 개도국의 빈곤을 국가 내부적 문제로 환원함과 동시에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병폐를 은폐하는 텍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가능성으로서는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자본주의화가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와 개인의 후원을 통한 치유의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텍스트로 작용한다는 관점이다.

텍스트 분석은 내러티브와 캐릭터라는 두 가지 이론적 범주를 바탕으로 한다. 내러티브란 캐릭터들의 행동과 연속된 사건들이 인과적이고 논리적

3) 〈월드스페셜 LOVE〉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인가 다큐멘터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능
한데 이러한 논란은 리얼리티 장르가 다큐멘터리의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을 차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각본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한
관찰, 제작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대상을 밀착 취재하는 플라이온더월(Fly on the
wall) 방식과,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시네마 베리테(Cinema
Verite) 스타일, 실제 사건과 사실의(documentary facts) 극적인 재구성 등이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의 공유된 제작 방식이다. 니콜스(Nichols, 2001)가 지적했듯이,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장르의 구분은 텍스트적 요소나 미학적인 특성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르에 대한 수용자의 기대감과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방송되는 제
도적, 산업적 환경과 문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컨대 〈American High〉란 시리즈는
FOX에 의해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방영되었으나, 1년 후에는 PBS에 다큐멘
터리 시리즈로 방영되었다. 방송채널과 같은 전시의 장소(site of exhibition)는 시청자
들이 장르를 구분하는 방식과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부여하는 사회적 중요성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알려준다(Murray, 2004). EBS의 〈리얼실험 프로젝트 X〉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요소를 갖추었으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색다른 다큐멘터리”로 홍보되고 있
고, 〈월드스페셜 LOVE〉가 “리얼 스타 다큐”, “자선 로드 프로그램” 등의 모호한 명칭으
로 홍보되는데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장르 구분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고 추정할 수 있다.

인 고리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내러티브가 재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일관적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텍스트의 지배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러티브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 의미들과 사건들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Chapman, 1990; Lothe, 2000). 편차는 존재하지만 <월드스페셜 LOVE>의 모든 에피소드에는 일관된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한국의 스타가 개도국의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빈곤한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것이다. 꿈이 없는 가난한 삶에서 희망을 주어 꿈꾸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메이크오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에피소드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6장에서는 다음의 패턴이 가진 함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 ① 스타와 제작진은 개도국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는다. 가는 길은 늘 험난하다.
- ② 스타는 아이들의 현실이 예상보다 열악함에 놀라고 때로는 눈물을 보인다.
- ③ 스타는 아이들의 삶을 체험해봄으로써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④ 스타는 아이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
- ⑤ 스타는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준다. 놀이동산, 동물원 등에 데려가거나 도시에 데려가 쇼핑을 한다. 사진촬영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감을 이룬다.
- ⑥ 스타는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움을 준다. 학교 아이들에게 옷과 약 등을 나누어준다.

- ⑦ 스타는 아쉬움을 간직한 채 마을을 떠난다.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기도 한다.

캐릭터는 사회적 관계들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개인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위치와 가치를 구현하는 담론적 구성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Fiske, 1987). 가난한 아이들과 성인들, 스타들이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 상징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캐릭터 분석의 핵심이 된다. 내러티브의 특징과 캐릭터에 대한 분석 외에 내레이션, 카메라 샷, 편집을 통한 몽타주 구성, 배경음악의 사용 등 텍스트의 의미를 형성하는 다양한 재현요소들도 분석의 대상으로 담는다. 텍스트 분석 외에 텍스트 형성의 산업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월드스페셜 LOVE〉를 기획한 책임 프로듀서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 시리즈 제작과 홍보에 참여한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의 팀장 세 명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는 30~50분 정도 진행되었고 녹음되어 분석을 위해 녹취되었다.

6. 분석

1) 가난에 관한 신자유주의 담론

(1) 개도국 가난의 정형화

스타들의 사랑을 통한 가난의 극복이라는 내러티브에서는 심각한 가난의 모습이 전반부에 극대화되어야만 후반부에 등장하는 스타의 선행에 의한 메이크오버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빈곤은 언제나 스타의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재현되는데, 빈곤의 심각성은 비주얼 몽타주와 비장하고 슬픈 음악, 스타와 사진작가의 리액션과 인터뷰,

내레이션 등의 장치의 결합으로 효과적으로 형성된다.⁴⁾ 가난의 슬픔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성우 김상현의 내레이션이다. 가난한 현실이 부여하는 절망감과 슬픔은 현지인의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우의 내레이션을 통해 대변된다.⁵⁾ 내레이션이 전해 주는 묘사와 감정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에피소드가 의도하는 내러티브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도와주고 절대적 가난의 현실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보인다.

굿네이버스의 한 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월드스페셜 LOVE〉의 제작진은 시청자들의 동정을 자아낼 수 있는 자극적인 케이스를 찾는데,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자 모집이 중요한 임무인 자선단체의 이익과도 어느 정도 부합된다.⁶⁾ 결과적으로 가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가족이 수혜자로 선정된다. 부모가 없는 아이, 아픈 홀어머니와 이 어머니를 돌보는 두 아이, 또는 눈이 멀어가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삼남매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지아와 한지민 편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모든 가족은 생계에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부재하고, 아이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노동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

등장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공색한 삶의 모습에 초점을 둬으로써 가난한 현실의 모습이 극대화되는데 “제자리를 잃어버린 일상은 누추하고 궁

4) 머릿속으로 그려온 아이들의 집. 그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김지수에게 다가왔다. 모든 것을 자연에서 구해 살아야 하는 상황. 들에서 잡은 개구리를 끓여서 남매는 살고 있었다(성우 내레이션).

5) 아이의 눈물에는 꺼내 놓지 못했던 너무 많은 말들이 들어 있을 것이다. 보고 싶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참았던 외로움에 대한 설움, 힘겨운 삶에 대한 두려움(성우 내레이션).

6) 근데 사실은 그걸(제작사가 자극적인 소재를 찾는 것) 뭐라고 할 게 또 아닌 것이 저희도 사실은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저희 또한 그런 케이스를 찾아야 ...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런 아이들을 시각적으로 뭔가 좀 자극이 되는 아이들을 봤을 때, 좀 그나마 움직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것마저 없으면 사실 행동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저희도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도 그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굿네이버스 팀장 인터뷰).

색하다”와 같은 직설적인 내레이션이 사용된다. 생계를 위해 빈 병과 깡통을 줍는 아이, 좁은 움막에서 여섯 명의 식구가 지내는 모습이나 고순열 아동들의 클로즈업 숏, 채석장에서 일하는 일곱 살짜리 여자아이, 맨발에 맨손, 보호 장비 하나 없이 쓰레기 더미를 맨손으로 뒤지는 아이들 등의 영상은 극대화된 가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가족에게 의식주 해결은 큰 문제인데 가난의 궁색함은 식사 장면에서 최고 절정에 이른다. 모든 에피소드에서는 등장 가족의 식사장면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스타와 스태프들의 장면이 등장한다. 날보리에 콩을 볶아 먹고 식사를 때우거나 냉국 하나를 놓고 다섯 식구가 맨밥을 먹는 모습이나 열한 식구가 맨밥에 소금만 찍어 먹는 모습은 동정을 일으키는 효과적 장치로 보인다.

효과적인 메이크오버를 위해 가난의 모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가난이 정형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가난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가난에 부여된 의미들은(예컨대 불행, 슬픔, 처절함) 스타가 대변하는 중산층 시각의 것으로 형성된 것이다. 현지인은 일상적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현실이 스타에게는 비참하고 안쓰럽기만 한 현실로 취급당한다. 류승범 편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는 네 살짜리 아이 싸이폰과 나눈 대화는 가난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스타와 제작진들에 의해 정의되어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류승범: 발 안 아파?

싸이폰: 안 아파요.(번역 자막)

류승범: 발이 피부 같지가 않아.

류승범: 발을 만지는데 진짜로 마음이 아팠어요. 굳어서 피부가 아주 딱딱해요.

갈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본 가난한 “그들”의 삶은 불행한 것이라고 규정지어 버리는 성향은 류승범 편뿐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에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이요원 편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뗏목을 타고 낚시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열 살짜리 아이 뚜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화면에 비친 뚜언은 활발하고 시종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지만, 슬픈 배경음악과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이요원의 클로즈업 샷, 제작진의 안쓰러운 표정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현지에서는 평범하고 반드시 불행하지만은 않은 삶을 불쌍한 삶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월드스페셜 LOVE〉에서 재현된 가난한 아이들의 삶에는 평범한 일상성과 희로애락은 존재하지 않고,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평가되어 비참하고 불행할 뿐이다. 영국의 뉴 이코노믹스 파운데이션(NEF)이 143개 국가의 삶의 만족도, 친환경지수, 기대수명 등을 조사, 발표한 행복지수(HPI)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8위로 〈월드스페셜 LOVE〉의 배경이 되는 8개 국가 중 6개 국가보다 오히려 월등히 낮은 편이다. 이는 개도국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나 행복이 한국이나 서구 선진국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⁷⁾

가난한 아이들은 불쌍하지만 순수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인 후원을 정당화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후원에 대한 동기를 시청자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기도 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순수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모든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착하고 순수하게 재현되며 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은 한국에서 온 스타들과 교감을 이루는 모습이나 사진작가가 촬영한 다채로운 영상, 내레이션을 통해서도 표현된다.⁸⁾

스타가 대변하는 중산층의 시각은 현지인들의 침묵과도 관련이 있다.

7) <http://www.happyplanetindex.org/public-data/files/happy-planet-index-2-0.pdf>

8)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착한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김지수 내레이션).

거의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현지인들의 생각과 감정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타나 성우의 내레이션을 통해서만 표현된다.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는 대부분의 에피소드당 몇 초에 불과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현지인의 목소리는 가난한 삶을 입증하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데만 허용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순수한 아이들과 스타의 도움에 감사하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인의 편견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 사람들에게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한다. 순수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며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도움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2) 개도국 가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신자유주의 담론

성우나 스타의 내레이션을 통한 나라, 지역에 대한 간략한 소개나 첫인상은 언급되었으나 개도국 가난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 맥락의 제공은 대부분 전무했다. 류승범, 이요원, 김하늘/이준기, 한지민 편에는 배경국가 가난하거나 도시와 주변 마을이 양극화된 이유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배두나, 이지아, 송지아 편에서도 한 문장 이하의 짧은 언급에 그쳤다. 김지수 편은 경우 캄보디아의 현실이 공산혁명 등 세계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킬링필드의 대학살이 무엇인지, 이를 초래했던 세계를 갈라놓은 냉전과 그 배경에 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이보영 편은 경우 게르 지역의 탄생배경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고, 신현준 편은 경우 미얀마 국민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배경에 관해 다른 편에 비해 자세히 설명되었으나 40분이 넘는 방송시간에 할애된 시간은 각각 1분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가난과 양극화에 관한 사회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초점이 아니며 가난의 적나

라한 현실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스타에 의한 자원봉사와 후원을 통한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최대한 극적으로 보여주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이 핵심임을 보여준다.

가난과 양극화에 대한 문맥의 부재는 이러한 문제들을 초래한 원인과 그 해결책에 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 즉 물질적으로 빈곤하면 희망이 없고 불행하다는 논리는, 가난의 원인은 저발전에 있으며 개도국 빈곤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에피소드는 한국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뒤떨어진 개도국의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문명과 자연의 이분법이 드러난다. 이 시리즈의 배경은 전기가 나오지 않거나 상·하수 시설이 발전되지 않아 물을 길기 위해 수십 분을 걸어야 하는 등, 대부분 과학기술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다. “아득한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은 여행”, “풍요로움 속에 분주히 흘러가는 우리들의 시간 그 반대편”이라는 내레이션으로 개도국은 한국보다는 경제수준이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 그래서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이 강조되고 있다.⁹⁾

빈곤에 대한 문맥의 부재는 가난과 양극화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현실이라기보다는 개도국 국가 내부의 특수한 문제임을 의미한다. 열악한 현실은 종종 그 지역의 자연환경, 재난과 결부되어 더욱 비극적으로 보여진다. 가난의 이유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에 비해 자연환경의 혹독함에 대한 묘사는 풍부하다. 예컨대 배두나, 류승범, 한지민 편의 경우 고산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는 길이 험하거나 위험함으로써 특수한 자연적 배경이 아이들이 힘든

9) 세탁기 하나면 제 스스로 빨고 삶고 말리고 다려서 바로 입을 수 있는 새 옷으로 대령하는 문명의 혜택. 그 일상적인 문명으로부터 겨우 5시간 반을 날아왔을 뿐인데 이곳에서 류승범은 완전히 다른 세상 하나를 발견했다(성우 내레이션).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이유임을 시사한다. 이는 가난의 사회구조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배제시킬 수 있으며, 가난과 양극화는 세계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사는 개도국에 한정된 특수한 문제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

가난에 대한 문맥이 절대적으로 부재할 뿐 아니라 개도국의 문화적 우수성과 역사적 전통이 철저히 배제된 채 가난으로만 정의되므로 우리보다 피부가 어두운 유색인들은 무능하다는 인종주의를 재생시킬 수 있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발견되고 있는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현지인 성인 남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난민을 다루는 신현준 편을 제외하고 모든 에피소드에서 아이와 중년 여성, 여성 노인의 어려운 삶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반면 성인 남자가 에피소드 전체에 걸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지아, 한지민 편을 제외한 모든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가족은 아버지가 부재한데, 현지인 성인 남자의 부재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성인 남성의 부재는 가족의 고통이라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한다. 둘째, 아이와 여성의 고통은 유색인 남성의 무능함에 의해 기인한다는 젠더화된 인종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이보영 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가출한 알코올 중독자로 추운 겨울 가족들의 삶의 터전인 게르의 천장을 찢고 들어와 생활고로 허덕이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뜯어가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두려움에 떠다. 무능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모습은 비록 몽골 게르 구역의 빈곤은 소련의 붕괴와 몽골 사회보장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야기되었지만 몽골 남성들의 의지 부족으로 극복되지 못했으며 결국 고통당하는 것은 아이와 여인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지아 편에 나온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사주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도 못 사줘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무능함을 지적하는데, 인종적으로 열등한 개도국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며 그 문제해결은 인종적·경제적으로 우월한 한국의

스타에 의해 이루어진다.¹⁰⁾

에피소드의 우울한 전반부와는 대조적으로 후반부에는 스타의 적극적인 활동이 경쾌한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데 스타를 통한 아이들의 변화는 메이크오버 내러티브를 성공적으로 완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월드스페셜 LOVE〉에서 가난은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메이크오버의 핵심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웃음과 희망을 되찾는 것이며, 이는 주로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타는 성우나 자막을 통해서 줄곧 “수호천사”로 칭해지는데, 제목이 말해주듯 가난한 아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수호천사들의 따뜻한 사랑이며, 이 사랑은 물질적인 후원으로 표현된다. 배우 김하늘이 필리핀의 아이를 처음 방문하자마자 “빨리 뭘 사줬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괜히 이려고 있으면 우리가 감정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한 것은 문제의 해결은 결국 물질적인 도움을 통해 가능하다는 중산층의 기본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수호천사들의 사랑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현되는데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스타는 음식을 준비해 가난한 아이들을 배불리 먹이며, 배불리 먹는 행복한 아이들의 영상이 아름답게 재현된다.¹¹⁾ 모든 에피소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스타가 마을을 벗어나지 못해 본 가난한 아이(들)를 데리고 가는 짧은 여행이다. 〈월드스페셜 LOVE〉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태어나 한 번도 차를 타본 적도, 가난한 마을을 벗어난 적도 없는데 여행지의 대부분은 물질문명을 상징하는 도시나 고급 휴양지이며, 이 시리즈의 협찬사 중 하나인 BMW의 승용차를 타

10) 책임 프로듀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봉사 프로그램이 국내보다 개도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의 초상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개도국 가난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제작 환경은 국가 간 경제적 양극화와 개도국의 빈곤을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개도국만의 문제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11) 굿네이버스의 한 팀장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스타들의 행동은 제작진들에 의해 지시된 것들이다.

고 자본주의의 상징인 도시로 향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스타와 아이의 여행은 도시와 시골, 중산층과 가난, 불행과 행복의 이분법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으로, 도시는 아이들이 꿈꾸는 희망이며 스타가 아이들에게 사주는 장난감, 신발, 수영복, 선글라스 등의 선물들은 “물질적인 충족이 가난한 사람들이 향해야 할 꿈이자 목표임”을 시사한다. 즉 가난과 불행은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가난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란 물질적 풍요를 잠시나마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¹²⁾

〈월드스페셜 LOVE〉는 작은 후원으로도 개도국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새집을 지어주거나, 염소와 닭을 사주고,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함으로써 아이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등장한 아이들만 보았을 때 스타의 도움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윤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스타의 숭고한 봉사의 이면에는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부재한 채 개인이나 국제구호단체의 후원을 통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담론이 숨겨져 있다. 매 에피소드마다 스타는 적은 돈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놀라며 작은 정성으로 아이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음에 감동하는데, 가난의 해결은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 없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나눔”으로써 이루어진다. 에피소드에 줄곧 등장하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나누는 행위가 가난의 해결임을 시사한다.¹³⁾

12) 이보영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아이에게 선물했다(성우 내레이션).

13) 우리가 잊고 살던 존재를 위해 단 한 번 눈길을 돌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저 조금만 나누면 바로 거기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찾아오는 것임을(성우 내레이션).

2) 신자유주의에 관한 비판적 담론

〈월드스페셜 LOVE〉의 지배 내러티브는 인종주의와 신자유주의 담론을 재생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상반되는 담론, 즉 세계 시민의 양극화와 자본주의의 모순에 관한 비판이 텍스트 내에 공존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은 개도국 가난의 문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지만 세계 시민의 경제적 격차에 관한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이요원 편에 등장하는 소녀가장인 썸은 유람선을 탄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과자와 음료수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베트남 오지에서 Ritz, Oreo, Aquafina와 같은 국제적 브랜드 물건들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린 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의 모습은 물건은 사지 않고 유람선 위에서 이들을 신기한 듯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는 백인 관광객의 모습과 대조된다. 물질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본주의 화폐경제에 의존해야 함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개도국의 전 지구적 자본주의로의 편입이 반드시 국민의 생활수준의 상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내의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썸은 유람선을 대상으로 온종일 물건을 팔러 다니면 하루에 미화 6달러 정도를 버는데 세계화와 세계 시민의 양극화는 몽타주와 내레이션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표현된다.¹⁴⁾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는 현지인의 하루 노동의 임금을 한화로 환산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전경으로 노동의 대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세계의 빈부격차와 불공평한 부의 분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14) 두 가지 배가 있다. 관광객에게 과일이며 음료수를 파는 수상마을 상인들의 배. 그리고 진귀한 구경거리를 카메라에 담는 (백인) 유람객들의 배. 하룻배이를 유유히 떠다니는 화려한 유람선들에 비해 이 바다 진짜 주인들이 모는 배는 그렇게 작고 초라했다(성우 내레이션).

제공한다. 세계화와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 국가의 시민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반대로, 개도국의 희생으로 선진국이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이 등장하고 국제적으로 불평등한 노동의 대가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자의 성찰을 촉구하는 내레이션이 등장한다.¹⁵⁾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초래한 빈부 차에 대한 현실은 대부분의 에피소드에 나타난다. “말레이시아도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은 되게 못사나 봐요”라고 지적한 신현준의 말처럼 〈월드스페셜 LOVE〉는 개도국 국민들은 모두 가난하다는 편견을 전복시키고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은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자 보편적 현상임을 지적한다. 신현준 편에서는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한 거리와 고층 건물이 늘어선 번화한 칼라퐁푸르와 스러져가는 주택이 늘어선 인근 외곽 지역의 빈민구역이 대조되고, 김하늘/이준기 편에서 역시 “경제성장이 국가의 제일이라는 인도네시아”라는 성우의 내레이션과 더불어 화려한 도시 풍경이 보여지고 레드랜드라고 불리는 빈민가의 처절한 현실이 보여진다. 쓰레기 더미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줍는 노인들이나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이 양극화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가난의 신자유주의식 해결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지배 내러티브는 비록 가난의 극대화와 그들의 불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현지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동시에 재현됨으로써 가난이 극복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임을 시사한다.¹⁶⁾ 〈월

15) 깨도 깨도 깨지지 않는 운명적인 가난을 짊어지고 사는 아이들. 그들이 깬 돈은 부자들의 집을 지켜주는 견고한 돌담이 되고 정원의 산책로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의 눈물과 땀을 소비하며 살아간다. 네팔 어린이가 깬 돌에 무심코 고기를 구워먹으며, 아시아의 어린이가 바느질한 옷을 밥 한 끼 값보다 싸게 사 입으며 (성우 내레이션).

드스페셜 LOVE)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시리즈에 나타난 양극화의 문제가 한국의 현실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송지효 편은 경우, 주인공 데이브가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은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임을 지적하는데 재개발로 쫓겨난 한국의 무주택자 서민들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세계 각국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현실은 성장을 통한 국민의 평균소득 증가가 절대적 가난이나 양극화의 해결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색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등장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결부되어 이해될 수 있다. 제작자가 의도한 성공적인 메이크오버, 즉 스타의 사랑으로 인한 가난 극복과 행복 찾기의 내러티브는 언제나 계획처럼 효과적이지는 못하며, 제작진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발생은 내러티브가 형성하는 신자유주의에 상반된 담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¹⁷⁾ 송지효는 늘 물이 고여 있는 아이의 집 앞의 물구덩이를 흙으로 덮는 작업을 하지만 며칠 후 폭우가 오자 집 앞뿐만 아니라 1층까지 물이 차버리고 만다. 제작진의 의도는 송지효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메이크오버의 실패는 개도국 빈민가의 현실이 중산층의 시각에서처럼 한 번의 도움으로 쉽게 개선되는 단순한 성격의 것이 아니며 현지인의 무능으로 기인한 것도 아니라는 담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김하늘/이준기 편에서는 주인공 아이들과 할머니를 데리고 고급 풀빌라로 여행을 가는데, 김

16) 화려한 빌딩 숲으로부터 불과 45분. 거기 전혀 다른 세상이 있었다. 도시가 품고 있는 극과 극의 풍경.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슬픈 공존(김하늘 내레이션).

17) 리얼리티의 중요성은 이 시리즈의 책임프로듀서와의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다. 비록 짜인 틀을 바탕으로 현실을 재구성하지만 제작자에 의한 과도한 왜곡(여기서 책임프로듀서는 “쿠킹”이나 “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은 그 인위성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하늘은 아이들이 여행 중에 몰래 재활용 쓰레기를 주어 가방에 모아 놓은 것을 발견한다. 김하늘은 아이가 휴양지에 오면 가난을 잊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지만 이는 가난을 모르는 중산층의 시각이었음을 깨닫는다. 행복해야 할 여행 중에도 아이들은 스타가 떠난 후의 현실인 끼니 걱정 때문에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월드스페셜 LOVE>에서 보이는 미완의 메이크오버는 스타의 일회성 봉사와 관심은 순간적이라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난의 극복이 개인의 후원과 도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한 것임을 말해 준다.¹⁸⁾

신자유주의식 가난 해결, 즉 개인의 자선이나 민간단체의 후원이 빈곤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시사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거대한 구조 앞에서는 미약하기만 한 개인과 민간단체의 후원은 스타의 깨달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흘린 그 미약한 땀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던 너무 견고한 가난”이라고 말하는 이준기의 내레이션도 개인적 후원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는 것의 한계에 관한 성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후원의 한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이요원 편으로, 이요원은 배에 시는 가족의 편찮은 어머니를 데리고 도시에서 가장 큰 병원을 찾아간다. 종합검사 결과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위중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곧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요원이 입원비가 든 봉투를 딸에게 전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고 배로 돌아가 여생을 마치기로 결심한다. 병원에서 세 시간이나 떨어져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질병치료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며 단기 의료봉사 차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한다. 부두에서 가족들과 작별하는 이요원은 장녀에게 또 다시 돈을

18) (제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잊는 거예요. 그냥 같이 놀 생각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이런 걸(쓰레기 줍는 일) 하면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은 머릿속에 이런 테와도 다 잊지를 않고 현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김하늘 인터뷰).

건넨다. 돈 봉투를 전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나 결국 돈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월드스페셜 LOVE〉가 호소하는 개인의 후원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자 최소한의 도리임을 시사한다.

아이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스타는 아이를 노동의 현장에서 해방시키고 학교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데, 이 역시 금전적인 후원으로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배우나 편에서는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만 정작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이요원 편에서도 집에서 뺏길로 한 시간이나 떨어진 학교로 가지만 아이는 열 살이 되어 처음 와 본 학교라 결국 학교 주위만 맴돌다 배로 돌아온다. 정작 학교에 가고 싶었던 아이가 막상 학교에 도착하자 계급차이로 인한 위화감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복 두 시간 거리의 학교를 매일 다니기는 불가능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월드스페셜 LOVE〉에서는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통한 가난 극복과 행복 찾기의 이데올로기를 재생하는 한편, 이와 상반된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담론도 일관적으로 등장한다. 가난한 아이들은 불행하다는 지배담론과 달리 오히려 욕심이 없고 소박하며 우애가 강한 것으로 재현된다.¹⁹⁾ 물질문명에 대한 성찰은 더 가진 삶의 욕심에 관한 스타의 반성에서 주로 나타난다. 스타들은 생활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우리나라 아이들과 달리 작은 것들도 서로 나누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놀란다. 한지민을 위해 없는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현지인의 모습, 국한 그릇을 놓고 대가족이 밥을 먹지만 감사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고 가

19) 세상의 지붕에 있으니 더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욕심 낼 일이 없는 나라. 네팔은 풍요로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부족함에 불행하지도 않는 나라다(성우 내레이션).

슴 몽클해 하거나 아이들의 끈끈한 우애에 감동하는 스타들의 모습이 종종 비추어진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은 있지만 외롭지는 않은 가족”이라는 내레이션처럼 가난한 삶에서도 인정과 사랑이 존재함이 표현된다. 불쌍한 빈민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배우고 돌아간다는 스타들의 경험은 경제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성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²⁰⁾ 이는 저개발 시절에 대한 막연한 노스텔지아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가난하면 불행하며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개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로 읽혀질 수 있다. 또한 시청자들이 불쌍히 여기는 개도국 아이들의 삶이 반드시 불행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현지인들이 그들의 일상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필리핀의 오지에서 선생님이로 이들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한지민은 아이들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지만 현지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의미는 가난한 당사자보다는 그들을 불행하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여한 것임을 보여준다.

7. 결론

이 연구는 tvN의 리얼 스타다큐 〈월드스페셜 LOVE〉 시리즈를 분석함으로써 스타들이 참여하는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가난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개도국 빈곤의 현실에 대한 외적, 내적 요소

20) 조금 반성했어요. 저도 제 동생 좀 많이 챙겨 줘야겠다고. 오는 내내 손 꼭 잡고 있고, 신발 끈 매주고 돌이 잡은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랑자야(동생)가 뛰어오니까 가운데 (끼워서) 손잡고 가고. 근데 가난해도 저렇게 살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이보영 인터뷰).

들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빈곤에 관한 사회구조적 차원의 논의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다.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한국의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의 위상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²¹⁾ 시청률을 고려한 방송사와 이미지 관리를 위한 스타와 매니지먼트사, 자원봉사단체의 사회공헌과 홍보라는 목표가 반영되어 제작된다. 〈월드스페셜 LOVE〉의 책임프로듀서와 굿네이버스는 개도국의 현실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자선단체의 복잡한 사업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엮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지적했고,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후원을 고려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감정에 호소하고, 이해하기 쉽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모습은 실제 국제구호단체의 활동과 큰 거리가 있음에도 동의했다.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가난 극복과 희망 찾기의 여정으로서 리얼리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성향이 강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징 때문에 가난에 관한 상반된 담론이 같은 텍스트 내에 공존한다고 보인다. 첫 번째, 대본 없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물의 정형화와 극적인 표현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로 인해 형성되는 담론은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나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로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가난과 양극화는 개도국의 특수한 현실이며, 양극화의 빈곤의 악순환은 내전이나 자연재해, 무능한 정부로부터 기인하며 희생양은 언제나 어린이, 여성과 노

21) 임민혁(2009. 11. 7). 반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지구상 유일한 국가 한국'. 『조선일보』.

인으로 재현된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 메이크오버를 위해 가난은 “문명과 야만”이라는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 의해 극대화되며, 내레이션은 지배적 해독을 유도하는 핵심적 장치로서 가난을 정형화하고 현지인의 고통을 대변한다. 가난은 자본주의적인 경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의 문제이며 기술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도시화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가난이 만들어낸 불행은 신자유주의적 해결책, 즉 구조적인 개혁 없이 기업과 민간단체의 후원이나 개인의 자선으로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메이크오버 포맷으로 극대화된 가난과 가난 극복의 내러티브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생하고 있는데 〈월드스페셜 LOVE〉가 보여주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해외봉사에 관한 숭고한 정신에도 불구하고, 문맥이 부재한 현실 재현이라는 점에서 오도적이다. 세계 시민의 양극화를 초래한 자본주의와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에 관한 복잡한 사회적, 구조적, 역사적 문제를 은폐시킴으로써 개도국의 빈곤은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 문제로 축소된다. 극대화된 가난과 스타의 시각으로 재현되는 내러티브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의 목소리를 주변화시키고 중산층을 대변한 스타의 목소리를 특권화시켜 보여줌으로써 개도국 사람들을 타자화시키며 가난은 개도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의 무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종주의 담론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현지인들이 개도국의 빈곤을 상징한다면 봉사하는 스타들은 한국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대변하고 좀 더 잘사는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는 시혜적 시각의 메커니즘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월드스페셜 LOVE〉에서는 내러티브가 만들어내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상반된 가난에 관한 비판적 담론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에 의한 메이크오버의 성공으로 인해 개인적 후원을 통한 가난 해결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지만, 메이크오버 실패로 인해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해결하는 데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담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제작자는 미리 계획된 패턴대로 내러티브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가진 장르적 특성인 불예측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장면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난과 양극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 즉, 스타 해외봉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지배담론으로서 가난의 성공적인 해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에 대한 환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비판담론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본주의화가 초래한 전 세계적인 양극화와 국가 내의 불평등에 대한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도시의 부유와 빈민촌의 절대빈곤의 대조는, 개도국 전체가 가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의 대부분이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현상임을 보여주고, 성실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악순환이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인 모순임을 시사한다.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계급 간의 격차를 보여줌으로써 성장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개인의 후원을 통한 가난 극복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기도 한다. 즉 이 시리즈가 보여주고 요청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후원은 빈곤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지만 현재로서 가능한 최선임을 보여준다. 굿네이버스는 단기 해외봉사의 한계와 스타 해외봉사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국제 빈곤문제 해결에 관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개인들의 작은 관심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월드스페셜 LOVE〉의 ARS를 통해 모인 3억여 원의 후원금의 의미와 긍정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시청자가 이 시리즈를 보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텍스트 내에 상반된 담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텍스트 분석결과 지배 이데올로기 담론이 비판담론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늠하

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수용자들은 반드시 지배 내러티브가 부여하는 의미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위치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지배담론과 비판담론이 뚜렷이 공존하는 텍스트에 대한 시청자 해석의 문제는 수용자 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미라 (2008). 리얼리티 데이트 프로그램 시청이 데이트와 이성관계에 대한 시청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353~450.
- 김영찬 (2006). 리얼리티 프로그램, 외화 시리즈 그리고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지형의 재편. 『프로그램/텍스트』, 13호, 79~93.
- 김예란·박주연 (2006).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제작자 심층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7~48.
- 노경란·방희정 (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권 4호, 75~92.
- 이종수 (2004). 『TV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뉴스, 리얼리티 쇼의 현실 구성』. 서울: 한나래.
- 우실하 (1997). 『오리엔탈리즘의 해체와 우리 문화 바로 읽기』. 서울: 소나무.
- 이경숙 (2006).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 <러브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239~276.
- 이강국 (2007). 『가난에 빠진 세계』. 서울: 책세상.
- 임민혁 (2009. 11. 7). 발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지구상 유일한 국가’ 한국. 『조선일보』.
- 홍석경 (2004).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구성: 현실과 허구의 혼합을 통한 텔레비전의 장르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6권 1호, 257~280.
- Alexander, B. (2004). Reality TV is a dangerous art form. In K. F. Balkin (Ed.), *Reality TV* (pp. 44~47). New York: Greenhaven Press.
- Andrejevic, M. (2004). *Reality TV: The work of being watched*. Landam, MD: Rowman & Littlefield.
- Berger, J. (1991). *Keeping a Rendezvous*. New York: Pantheon.

- Bondebjerg, I. (1996). Public discourse/private fascination: Hybridization in 'true-life-story' genres. *Media, Culture & Society*, 18, 27 ~ 45.
- Chapman, S. (1990). *Coming to terms: The rhetoric of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Chossudovsky, M. (1997).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Impacts of IMF and world bank reforms*. 이대훈 역(1998). 『빈곤의 세계화: 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서울: 당대.
- Corner, J. (2000). Documentary in a post-documentary culture? A note on forms and their functions.
<http://www.lboro.ac.uk/research/changing.media/John%20Corner%20paper.htm>
- Fiske, J. (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UK: Routledge.
- Gross, L. (2001). *Up from invisibility: Lesbians, gay men, and the media in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ill, A. (2000). Fearful and safe: Audience response to British reality programming. In J. Izod, R. Kilborn, & M. Hibberd (Eds.), *From Grierson to the docu-soap: Breaking the boundaries* (pp. 131 ~ 143). Luton, UK: University of Luton Press.
- Holmes, S., & Jermyn, D. (2004). Introduction: Understanding reality TV. In S. Holmes, & D. Jermyn (Eds.), *Understanding reality television* (pp. 1 ~ 32). London, UK: Routledge.
- Kilborn, R. (1994). 'How real can you get?': Recent developments in 'reality' televis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9, 421 ~ 439.
- Kilborn, R. (2000). The docu-soap: A critical assessment. In J. Izod, R. Kilborn, & M. Hibberd (Eds.), *From Grierson to the docu-soap: Breaking the boundaries* (pp. 111 ~ 119). Luton, UK: University of Luton Press.
- Kraszewski, J. (2004). Country hicks and urban cliques: Mediating race, reality, and liberalism on MTV's *The Real World*. In S. Murray, & L. Ouellette (Eds.), *Reality TV: Remaking television culture*. (pp. 179 ~ 196).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Lothe, J. (2000). *Narrative in fiction and film: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Carthy, A. (2004). Stanley Milgram, Allen Funt, and Me. In S. Murray, & L. Ouellette (Eds.), *Reality TV: Remaking television culture* (pp. 19~39). New York: NYU Press.
- McMurria, J. (2008). Desperate citizens and good Samaritans: Neoliberalism and makeover reality TV. *Television & New Media*, 9(4), 305~332.
- Miller, E. D. (2000). Fantasies of reality: Surviving reality-based programming. *Social Policy*, 31, 6~15.
- Munūz, J. E. (1998). Pedro Zamora's *Real World* of counterpublicity: Performing and ethics of the self. In S. Torres (Ed.), *Living color: Race and television in the United States* (pp. 195~218). Durham, UK: Duke University Press.
- Murray, S. (2004). I think we need a new name for it: The meeting of documentary and reality TV. In S. Murray, & L. Ouellette (Eds.), *Reality TV: Remaking television culture*. (pp. 40~56).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Newcomb, H. M., & Hirsch, P. M. (1983). Television as a cultural forum: Implications for research. *Quarterly Journal of Film Studies*, 46~55.
- Nichols, B. (1994). *Blurred boundaries: Questions of meaning in contemporary culture*.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Nichols, N.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Ouellette, L. (2004). Take responsibility for yourself: *Judge Judy* and the neoliberal citizen. In S. Murray, & L. Ouellette (Eds.), *Reality TV: Remaking television culture* (pp. 231~250).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Park, J. (2009). The uncomfortable encounter between an urban black and a rural white: The ideological implications of racial conflict on MTV's *The Real World*.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52~171.
- Pullen, C. (2004). The household, the basement and *The Real World*: Gay identity in the constructed reality environment. In S. Holmes, & D. Jermyn (Eds.), *Understanding reality television*

- (pp. 211~232). London, UK: Routledge.
- Roscoe, J. (2001). *Big Brother* Australia: Performing the 'real' twenty-four-seve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4, 473~488.
- Seabrook, J. (2003). *The no-nonsense guide to world poverty*. 황성원 역 (2003).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서울: 이후.
- Syvetsen, T. (2001). Ordinary people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A study of participants in television dating games. *Media, Culture & Society*, 23, 319~337.
- Ziegler, J. (1999). *La faim dans le monde expliquée à mon fils*. 유명미 역 (2007).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유엔 식량특별조사관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의 진실』. 서울: 갈라파고스.
- Ziegler, J. (2005). *L'empire de la honte*. 양영란 역(2008). 『탐욕의 시대: 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서울: 갈라파고스.

abstract

The Social Implications of Charity Reality Programs: Discourse about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Ji Hoon Park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Kyung Hwa Ryue

Graduate Student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vN's *World Special Love* series to discuss the social implications of charity reality programs where top stars volunteer to help poor children in developing nations. Both ideological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are discussed. The study first indicates that charity reality programs offer an ideological discourse about neoliberalism which supports individual benevolence as a means for reducing poverty, thereby distracting public attention to structural problems that perpetuate economic inequality at both global and national levels. Despite the ideological limitation,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charity reality programs also offer a critical discourse about poverty by showing a relatively unmediated reality of poverty and inequality caused by globalization and capitalist economic development. The study suggests that the genre characteristics of reality TV explain the co-existence of conflicting ideological discourses about poverty. The industrial practices of typecasting and narrativization have ideological consequences because the genre simplifies the complexity of social issues, and thus fails to offer a broader context in which social issues

are properly understood. On the other han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reality TV, such as unpredictability, unscripted performance among ordinary people, and the producers' limited control, may engender an unusual space in which critical discourses about social inequality can be discussed.

key words: poverty, reality program, global volunteering, neoliberalism, racism